출1장

70명에서 시작함 – 60만 대군으로 하나님이 키우심 (창-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탄이 활동함. 파라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탄압함.

하나님의 사람 – 산파들 : 세상의 왕인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 살다보면 목숨 걸고 순종을 해야될 인생의 순간이 온다.

출 2장

사탄 – 더욱더 잔인한 방법 : 히브리 남자 애기를 모두 죽이는 상황.

현실은 너무 어렵고 참혹하다.

하나님의 계획 :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 하심 – 모세.

모세의 생명을 보존함,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 받게함.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동족을 잊지 않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한 상태였다.)

자기 방식으로 애굽 사람 살인 후 도망감. 인간적인 행동 –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이후 하나님이 부르셨다. 긴 세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것 포기하고 연약한 상태,,,

모세의 질문? Who am I ?

god answered : I will be with you.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등은 인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성경은 대답한다. 하나님이 나와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인생의 근본 대답은 내가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지 하는 둘 중의 하나이다.

(롬 7장에는 내가 주어이고, 8장으로 가면 성령의 법이 주어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높은 지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연약한 정직한 상태에서 주님이 사용하신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 –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다윗도 왕의 수업을 받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

애굽에서 일한 댓가를 받게 하심. 금, 은 등등 (나중에 성전 건축 등에도 사용되었지만 금송아지 만드는 곳에도 사용됨.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탄의 방해에 부딪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만이 담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모세 말을 잘 못함. 지혜로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출 4장

하나님의 일을 할려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생각들이 많이 든다. (모세의 불평)

이런 것들 모두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성장하도록 인내해 주신다.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승리의 방법 및 도움을 준비하신다. 예를 들면 아론을 준비 하심.

결론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핑계는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모세를 준비 시킴.

광야에서 미리 40년간 리더로 준비시키고,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심.